

구전에 따르면 이쿠노 광산의 채굴은 807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쿠노 광산은 예전에는 일본 굴지의 채굴량을 자랑하는 은광이었습니다. 1868년 메이지 정부는 다이너마이트와 아말감 제련법 등 당시의 최신 기술을 투입했으며, 근대화 촉진을 위해 이쿠노 광산을 모델 광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광산의 근대화를 위해 광산 전문가인 장 프랑수아 쿠아네(1835-1902년)를 필두로 한 프랑스인 기사들이 고용되었습니다. 기사 중 한 명인 레옹 시슬레(1847-1878년)가 이쿠노 광산과 히메지의 시카마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머캐덤 공법의 도로를 설계했습니다. ‘이쿠노 광산로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은 1876년에 완공되었으며 마차로 인해 자재 운송이 현격히 빨라졌습니다. 프랑스인 기사들의 통역사였던 아사쿠라 모리아키(1843-1924년)는 후에 이쿠노 광산의 초대 광산국장이 되었습니다.

1896년 일본 정부는 이쿠노 광산을 미쓰비시 합자회사에 매각했고, 1973년 폐광 때까지 조업을 이어갔습니다. 폐광된 이듬해 하나의 갱도가 관광용으로 정비되었으며, 내부에는 ‘GINZAN BOYZ’라고 불리는 마네키와 함께 채굴 작업 모습과 도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광 갱도의 출입구 부근에는 인포메이션 센터와 에도시대(1603-1867년)의 제련 과정을 설명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쿠노 광산 관련 유구(이쿠노 광산 및 광산촌의 문화적 경관)는 국가 선정 중요 문화적 경관입니다.